

01 교회소식

학생주일학교 하계수련회

우리 교회 및 전국 지교회 학생주일학교에서 함께한 '2012 학생 하계수련회'가 강원도 횡단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02 생명의 말씀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며 변질되는 것이요, 영적인 사랑은 상대 유익을 구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03 신앙상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성경 곳곳에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기록하고 있다.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

04 간증

주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제19회 만민학생찬양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다솜 자매와 수련회 시 생활규율분과 부장으로 봉사한 이승민 형제의 간증.

만민뉴스

제545호 2012년 8월 1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님,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꼭 갈게요” 만민의 미래 ‘2012 학생 하계수련회’ 열려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행복~ 말씀, 은혜, 성령 충만한 만민의 학생들이 '2012 학생 하계수련회' 셋째 날 밤 캠프파이어에서 열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왼쪽부터 김태한 목사의 교육, 골든벨 퀴즈, 이수진 목사의 교육과 이어진 기도회, 제19회 만민학생찬양제 참가자들, 체육대회, 이희선 목사 인도로 진행된 캠프파이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횡단청소년수련원에서 '2012 학생 하계수련회'가 열렸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천안, 서산, 마산, 밀양, 김해, 통영, 포항, 구미, 목포, 전주, 강릉, 춘천 등 전국에서 참석한 수련회는 무더운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날씨 속에 진리와 은혜, 감동이 넘쳤다.

영의 마음을 이루게 했던 감동의 교육 및 기도회

학생들은 매일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됐다. 7월 30일, 첫날에는 김태한 목사(학생주일학교 교장)가 '인간 경작'(창 3:23, 시 105:17~19)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인간 경작 섭리를 깨달아 참 자녀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자."고 전했다.

7월 31일, 이수진 목사(교역자회 회장)는 '선택'(롬 12:1-2)이라는 제목으로 "학생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의 본분인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오직 진리, 선, 영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8월 1일, 이희선 목사(전국 남녀선교회 총지도교사)는 '영'(요 4:24)이라는 제목으로 "영의 마음은 상대 위주로 생각하며 상대 유익을 구해주는 것"이라며 성경의 뜻을 예로 들어 "영의 마음을 이룰 것"을 당부했다.

한편, 둘째 날과 셋째 날 교육에 이어진 기도 시간에는 삶 속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비진리를 선택한 마음을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만민학생찬양제, 체육대회,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며 재능을 발휘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첫날 '골든벨 퀴즈' 시간에는 예선을 통과한 학생 60여 명이 경합을 벌여 심은혜 자매(중2)가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둘째 날 오전에는 '제19회 만민학생찬양제'가 열렸는데, 열띤 경합을 벌인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정다솜 자매(고2, 4면 참조)가 영예의 대상을, 장다솜 자매가 금상을, 이보미 자매가 은상을, 김아름 자매(이상 고3)가 동상을, 김주영 자매(중3)가 인기상을 각각 수상했다.

셋째 날 오전에 열린 '체육대회'는 본교회 세 팀과 지교회 연합팀으로 나눠 진행돼 지교회 연합팀이 지난해에 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저녁 시간에는 이희선 목사의 인도로 '캠프파이어'가 있었다. 학생들은 약속을 의미하는 반지를 끼고 신랑 되신 주님께 "영의 마음, 온 영의 마음을 이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꼭 들어갈게요."라고 다짐하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

활기찬 학생들의 각 분과별 봉사 수련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도교사,

부장, 교사들이 영육 간에 보살핌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진행분과를 비롯해 봉사, 생활규율, 예배, 친교, 방송, 체육, 찬양제, 골든벨 퀴즈 분과 등 학생들의 봉사는 아름다웠다.

봉사분과장 최유정 자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달 전부터 작정 기도와 릴레이 금식으로 준비한 수련회인 만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교육도 잘 받을 수 있었다."며 "80여 명의 분과원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며 수고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등부 연합회장 이지영 자매는 "시원한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학생들 마음이 돼 이해하기 쉽게 말씀 증거해 주시고 많은 학생에게 직접 기도로 도와주신 강사님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과 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수련회 통해 변화한 학생들이 더욱 성결을 향해 달려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요일 4:7~8)

부모가 정성을 다해 자녀를 뒷바라지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키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만족을 채우거나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지요. 자녀가 진로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부모 뜻과 다르면 반대하며 서운해합니다. 결국 자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대가를 바라는 조건적인 사랑이었음을 말해 주지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까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부모가 늙고 병들면 무시하고 귀찮아합니다.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떨어져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 자녀, 내 생활이 중심이고 점점 부모님에게서는 무관심해지지요. 더구나 재산이나 돈을 요구해서 거절당하면 미워하고, 심하면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적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친구에게 목돈을 부탁하거나 담보를 서달라고 합니다. 친구가 거절하면 배신감을 느끼며 사이가 소원해지지요. 진정 사랑하면 상대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사랑은 자신의 실리를 따지고 유익이 없으면 멀리하고 맙니다.

2. 영적인 사랑이란?

사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푸는 일 또는 그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더 차원 높은 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곧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은 영적인 사랑을 나눴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는 다윗이 몰래 돌로 블레셋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용사임을 알아 보았습니다. 자신도 군대를 이끄는 장수였기에 그의 용맹함이 흠모됐고 마음이 뜨거워졌지요. 그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다윗에

게 어떠한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았지요.

사무엘상 18:1~4에 보면 “...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했지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남으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후계자였지만 그는 사심이나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직책에 연연하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사울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을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을 구해 줬지요. 이러한 사랑이 죽을 때까지 한결 같았습니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자 다윗은 식음을 폐하고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 사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왕궁에서 자신의 아들처럼 돌보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랑은 비록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될지라도 생명이 다하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자신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를 위해 한결같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3.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혹여 여러분은 영적인 사랑과 반대되는 육적인 사랑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쉽게 변하고 마는 사랑에 아파하고 외로워할 때 우리를 위로하고 친구가 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시지요.

주님께서는 아무 죄와 허물이 없는데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를 받으셨기에 누구보다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하늘 영광을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참된 사랑을 주셨지요.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7년간 계속된 투병생활 끝에 남은 것이라고는 병든 몸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뿐이었지요.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제 곁을 떠났습니다.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멸시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조차 없이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값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셨지요.

이사야 49:15~16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하시지요.

모두가 떠났다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던 그 순간에도 저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통의 세월이 있었기에 하나님 사랑이 참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이제는 수많은 영혼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줄 수 있는 주의 종이 돼 그 은혜를 갚고자 충성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아름답고 값진 것들로 천국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루를 천 년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조금만 마음을 열어도 하나님의 섬세하고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변질되는 육적인 사랑과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영적인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임을 깨달아 영원히 하나님과 변치 않는 사랑을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기도는 왜 부르짖어 해야 하나요?”



Q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군요. 기도는 왜 부르짖어 해야 하나요?

A

예레미야 33:3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약속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며 응답을 약속하신 이유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잡념이나 피곤, 졸음이 틈탈 수 없고 중심을 바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거나 밤에 집에서 기도할 때에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부르짖는 기도

누가복음 22:44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났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 사무엘, 스테반 등 믿음의 선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셨지요(출 15:22~25, 민 12장, 삼상 7:7~10, 행 7:54~60).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므로 아이가 살아났고(왕상 17:17~24),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도 부르짖어 기도하므로 살아났습니다(욥 2장). 소경 바다매오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므로 보게 되는 축복을 받았지

요(막 10:46~52).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간절한 중심으로 소리 높여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성령이 충만하고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므로 응답은 물론, 나아가 신령한 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성령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법칙에 따른 응답의 비결

사람은 첫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므로 저주를 받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창 3:17~19).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시므로 모든 저주가 풀렸다 하지만 사람이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지요(살후 3:10). 그래서 기도를 하되 땀 흘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아시지만 천사들은 모르기에 입 밖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 향을 천사장에게, 천사장은 기도의 향을 모아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기도 향로에 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 응답받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영적 의미

혹자는 마태복음 6:6을 예로 들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

버지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굳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 하였고(눅 6:12),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막 1:35).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으셨지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고(단 6:10),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으며(행 10:9), 사도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 기도했습니다(행 16:13~16). 이는 마음과 중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방’은 영적으로 ‘사람 마음’을 의미합니다. 골방과 같이 은밀하고 조용한 곳에서 문을 닫으면 외부와 차단되듯이 기도할 때 모든 생각과 잡념, 세상 근심 걱정을 끊고 마음 중심을 모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길에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즉 중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오직 중심을 보고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마음과 중심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 방언 기도란?

TIP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가 성령의 은사(고전 12:10) 중의 하나인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전 14:5).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수 마귀 사단이 방해할 수 없고 자신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빌 바를 간구하시는 것이므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고 신속히 응답을 받는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육체의 피곤을 이길 수 있으며 시험 환난도 물리치고 막아낼 수 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도 통달하시므로 영의 사람이 된 만큼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며 장래의 일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방언 기도를 하면 천국 소망이 주어지며 믿음이 충만케 되니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 임한다. 하지만 마음의 소원은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고전 14:14) 마음의 기도를 병행해야 한다.

방언 기도는 영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오직 영혼이 잘되기 위해 구하는 반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다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육적 문제 즉 가정, 직장, 사업터, 일터의 문제, 마음의 소원 등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기도와 방언 기도를 병행함으로써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바란다.

GCN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7-11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1-4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2
- 온전한 심일조와 헌물 1-3
- 지옥 16-17 - 일곱교회 1-3

GCN TV 설교

- 이숙진 목사의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5-8'
- 정구영 목사의 '십자가의 도 13-14'
- 이희진 목사의 '천국과 지옥'
- 이미영 목사의 '대인과 소인배'

찬양 프로그램

- GCN파워프레이즈(2) 8-13

GCN 특선명화

- 십계 1부 / 2부

24시간 연중무휴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및 A/S 문의 **1577-2073**

“복음을 전하는 방송 선교가 제 꿈입니다”

이승민 형제 (고3선교회)

주 안에서 큰 문제없이 건강하게 성장한 제게 신앙을 다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당회장님께서 학생 본분을 벗어나 이성 친구를 사귀며 범죄하는 학생들을 마음 아파하며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뒤 곧바로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했지요.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제가 희망하던 방송 선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서울방송고등학교에서 홍보차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순수기독교방송인 GCN 방송(www.gcntv.org)에서 근무하는 꿈이 있었기에 그 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제 내신 성적으로는 입학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중학교 3년 동안 학생회장과 모범상 수상 경력이 있어서 학교 추천으로 합격할 수 있었지요. 현재 방송 콘텐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저는 올해 9월 대학교에 수시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금년 학생 하계수련회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수련회 생활규율분과 부장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학생들이 시간과 규칙을 준수하며 적극 동참해 은혜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열심히 활동했지요.

그 후 상대를 섬기고 화해하는 마음이 커져 성숙해진 제 자신을 발견하며 늘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1995년, 엄마가 저를 잉태하고 3개월쯤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은 “태아 심장이 약해서 태어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며 낙태수술을 권하셨다고 합니다.

의사가 낙태를 권할 정도로 심장이 약했지만

그 당시 엄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생명이 있는 아이를 낙태할 수 없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를 하던 중 마음에 ‘날으라’는 강한 주관과 와서 출산할 때까지 새벽기도와 금식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하네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태어나 주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초등학교 때에는 아동 찬양부에서 활동했고, 아동주일학교 헌신예배 때 ‘JESUS’를 인도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말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고,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친구들이 유행을 좇아 옷을 입고, 세상 오락을 즐기는 것이 좋아보여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며 잠시 방황하던 중

2008년 5월,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7주 특별 다니엘절야 기도회가 있었는데, 기도회 마지막 날 추첨에서 엄마가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엄마 이름이 불리자 저희 가족은 당회장님과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단 앞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당시 저는 기도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곤 했습니다. 그때에도 교회 근처에 있던 저는 급히 연락을 받고 성전으로 달려갔지요. 하급지급 본당에 들어서서 단 앞까지 걸어가는데 마음이 쿵쾅거렸습니다. 민망한 마음으로 뒤늦게 온 저를 당회장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맞아 주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순간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지요. 그리고 당회장님의 온화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사랑을 느끼며 새로워져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을 사모하며 찬양 사역자의 꿈을 키워가니

저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정다솜 자매 (고2선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주님 사랑 이에요”

릴 수 있을까?’ 하며 기도하던 중, 찬양 사역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악 공부를 시작했지요. 그즈음 꿈에 당회장님께서 “새 예루살렘 자녀로 선택됐어요. 감사해요.”라고 하며 악수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저는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공부할 수 있었지요.

올해 3월에는 당회장님께서 찬양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단전호흡법을 전해 듣고, 그 뒤로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실력이 급격히 향상됐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교만과 비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성결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난 6월 17일, 주일 1부 대예배 성가곡으로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지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서원하며 눈물로 찬양했습니다.

‘제19회 만민학생찬양제’ 대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해 19회째로 개최된 ‘만민학생찬양제’는 학생부 전통을 자랑하는 행사로서 만민의 찬양 사역자의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양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서부터 찬양제를 준비해 온 저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아름답고 선한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길 원했지요.

드디어 7월 31일, 저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주님 사랑이 마음 가득 밀려와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지요.

행사 이틀 전, 아빠 꿈에 당회장님께서 찬양제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의 찬양이 모두 끝난 뒤 무대에 올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악수를 하며 “수고했어요.”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게는 안아 주시며 “축하해요.”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꿈을 통해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 사랑을 전하는 찬양 사역자가 돼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평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림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미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심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번지 중앙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진주만민교회 전북 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백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릉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총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